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 뜻대로 순종해주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0월 10일)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사부대중 원력 뜨거웠다 전법 기금 151억원 모연

상월결사 11월 11일 사부대중 전법대회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오른쪽)이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에게 전법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코엑스 메가박스 대중 5백명 운집
종정예하, 총무원장스님 금일봉
자승스님, 20억원 전법기금 '쾌척'
이웃종단 지도자, 기금 기부 동참
151억여 원 대학생 전법기금 모연

늦가을 이르게 찾아온 영하의 날씨였지만,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한국불교 사부대중의 원력은 뜨거웠다. 종정예하부터 일반 신도까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원력으로 전법기금 기부에 동참했고 총 151억3990만원의 전법기금이 모연됐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1월 11일 서울 강남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대학생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이하 사부대중 전법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법대회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 부의장 도후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세민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前총무원장 원행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유정현 대불련 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참석해 대학생 전법 불사에 뜻을 모았다.

위기의 돌파구는 대학생 전법

상월선원 천막결사 4주년을 맞아 열린 '사부대중 전법대회'는 대학생 전법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향후 10년이 한국불교의 명운을 결정함을 분명히 하며, 대학생 전법 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상월결사는 지난 4년여 동안 수행과 순례의 공덕을 이웃과 사회,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 정진해왔다. 불교중흥을 향한 신심과 원력은 곧 한국불교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다"고 술회하며 "부처님 법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함께 나누고 전하지 못했던 안일함이 젊은 불자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경책이었다"고 밝혔다.

"수행의 공덕과 전법의 원력을 한데 모아 다시 찾아오지 않는 오늘을 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한 자승 스님은 "부처님의 법이 우리를 인연 맺게 해줬다. 생동하는 사고, 대중의 전법 향기는 바로 지금부터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수많은 부처님의 6번째 제자였던 '청년 야사'를 '청년 붓다'로 성장시키기 위한 밑거름으로 대학생 전법기금이라는 자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그것이 부처님 법을 조금 먼저 만난 우리 승가와 선배 불교인들이 미래의 불자들과 불교중흥을 위해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부대중을 비롯한 모든 불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해 오늘의 자양분이 미래의 화수분이 되어 대학생 전법의 동력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이 역사적인 전법의 길에 제37대 종단 집행부는 늘 함께 하고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부대중 '통 큰 기부' 이어져

이날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는 한국불교 명운이 달린 대학생 전법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의 기부가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상월결사에 금일봉을 하사했으며,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금일봉을 전달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20억 원을 대학생 전법기금으로 쾌척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5000만원,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이 3000만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3000만원을 전법기금으로 기부하며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조계종 원로의원, 중앙종회,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종단 직영사찰, 동국대 및 산하학교, 재가불자 등이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대학생 전법기금 조성에 동참했다. 사부대중의 뜨거운 원력은 역대급 규모의 기금 조성으로 이어졌다. 이날 모연된 대학생 전법기금은 151억3990만원에 이른다.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과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와 대학생 불자를 대표해 사부대중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진심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 새로운 길을 함께 걷고 함께 지평선 너머의 세상을 꿈꾸고 그 결실을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과 나눠야 한다"면서 "11월 11일은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시작한 날이다. 11월 11일을 '한국불교 전법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유정현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들이 보다 많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배우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사부대중의 원력과 응원을 양분 삼아 더더욱 부처님 법이 캠퍼스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희 대불련과 대학생 법우들을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는 오는 11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하는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 시사회가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장관도 종정예하 앞에선 '남순동자'

1951년생인 유인촌 문체부장관도 조계종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앞에선 구법여행하는 '남순동자'다. 1939년생으로 팔순을 훌쩍 넘긴 성파 대종사와 12살 어린 띠동갑 유 장관이 11월 14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만났다. 법복 차림으로 예를 갖춰 찾아온 유 장관에게 성파 대종사는 직접 옻으로 염색해 만든 스카프를 손수 목에 걸어주며 덕담을 건넸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문체부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 중임 추천

원로회의 제73차 회의…대종사 · 명사 특별전형 통과

조계종단 최고의 계사로 꼽히는 전계대화상에 태허 무관 대종사〈사진〉가 중임 추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3차 회의를 열고, 12월 14일 임기만료 예정인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의 중임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무관 스님은 1959년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무관 스님은 지관 스님 전강제자로서 승가교육에 평생을 매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해인사 율원장, 행자교육원 유나,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조계종 의제실무위원장과 계단위원, 법계위원장 소임도 맡았다. 이에 지난 2020년 전계대화상으로 위촉돼 단일계단 수계산림 등을 관장해왔다. 임기는 3년이다.

원로회의는 중앙종회 동의를 거친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성 스님(직할), 법전 스님(마곡사), 지근 · 성문 스님(동화사), 정일 스님(해인사), 도실 · 상운 스님(범어사), 법운 · 원천 스님(통도사), 도원 스님(금산사), 동명 · 철산 · 재석 스님(선운사) 등 13명은 대종사 법계를, 법공 · 요명 · 법영 · 성욱 · 지연 스님(직할), 현각 스님(동화사), 도명 스님(해인사) 등 7명은 명사 법계를 받는다. 원로회의는 또 신임 사무처장으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의 임명을 동의했다.

이날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종단 최우선 과제는 전법도생과 포교다. 포교는 우리 불교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자 승려로서 해야 할 최고의 수행 가치기도 하다"며 "종단 최고의결기구로서 우리가 바로 해야 종단 기강이 살고 정법이 유지된다. 원로들께서도 포교에 마음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집행부는 한국불교 본래 가치인 모든 중생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천년을세우다'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종책 과제와 사업들이 원로의원 대종사님들의 지혜와 덕화에 힘입어 원만히 진행되고, 종단 발전과 불교중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가르침을 내려주시길 앙망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 각 종각문중제실 박 물 관
안 내 소 전 시 장 산 신 각 한옥인테리어 공용화장실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 편리한 유지보수 | 화재에 강함 | 간단한 조립구조

한국스틸 고건축 문의 010-5023-5050